

Aal izz well



Aal izz well은
'All is well'의 인도식 발음입니다.
긍정적으로 인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RatonAtti 10th
Mumbai, India

Contents

1. 12월 일정

2. 12월 활동 보고

- Morning Tuition

- Kitchen Gardening

- Skipping Rope

- The Library

- Christmas Celebration

3. 우리들의 이야기

4. 12월의 특별한 이야기

5. Monthly Photo

1. 12월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Skipping Rope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Skipping Rope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Skipping Rope
8	9	10	11	12	13	14
Football Match & Fun Fair @Borivali Centre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Skipping Rope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Skipping Rope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Christmas Celebration @Andheri Branch
15	16	17	18	19	20	21
Christmas Celebration @Central Branch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Festival @B.K. College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Skipping Rope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Skipping Rope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Christmas Celebration @Borivali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Skipping Rope
22	23	24	25	26	27	28
문화 생활 @영화관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Library Work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Christmas Celebration @Boy's Home	Merry Christmas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Skipping Rope Library Work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Library Work (Painting Start)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Library Work
29	30	31				
Mumbai Zoo With Boys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Library Work	Morning Tuition Kitchen Gardening Skipping Rope Library Work				

2. 12월 활동 보고

(1) Morning Tuition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Boys Home Junior(저학년)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시간을 이용해 Tuition을 진행한다. 각 학년별로 한 분의 봉사자 선생님이 계시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복습하거나 숙제 하는 것을 도움을 받는다.

처음 Morning Tuition을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는 외부에서 오시는 봉사자 선생님이 없는 유치원(STD-SrK.G.)반에 4명이 들어갔었다. 하지만 Boys Home을 돌보고 있는 Allen과 Vijay Uncle의 제안으로 1월에 있을 시험을 대비하여, 학년별로 한 명씩 흠어지기로 했다. Karan 단원은 유치원에 남기로 했고, Neeta 단원은 2학년에, Rohan 단원은 3학년에, Priya 단원은 4학년을 맡아 수업을 진행했다. Priya 단원의 경우 1학년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기간 동안은 1학년으로 가서 학습을 도와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기존에 Tuition을 담당하고 있던 선생님이 따라 반 분위기도 달라 분위기를 익혔다. 동시에 같은 학년이라지만 아이들의 학습 수준과 집중도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파악하는 등 아이들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쳤다. 현재 우리는 대부분 집중을 하지 않거나,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쳐지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친구들을 집중시키고 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방법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어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이 집중하여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전부일 때도 많아서 Tuition 시간에 우리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느껴 고민이 되기도 했다. 여러 고민 거리를 던져준 Morning Tuition이지만 각자 반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즐겁게 기억될 것 같다.



(2) Kitchen Gardening

Nilshí Camp Lakeside에서 진행된 캠프 프로그램 중에서 'Farming'이 있었다. 친환경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텃밭을 조성하고 가꾸어 나가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팀원들과 Andheri YMCA staff 역시 흥미를 느끼고 숙소 뒤의 작은 공터에 텃밭을 가꾸기로 했다.

처음 시작 했을 당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 줄을 몰랐기에 YMCA내에서 Garden에 대해 잘 알고 있는 Ghatkopar Branch의 Secretary Leonard와 캠프에서 Farming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Rego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돌이나 통나무 등으로 가장자리를 만들어 식물을 기르기 위한 5개의 텃밭을 디자인했다. 그 중 햇볕이 잘 드는 3개의 텃밭에는 식물을 심을 예정이고 나머지 2개의 텃밭은 나뭇잎을 이용하여 흙을 만드는 것으로 사용 할 예정이다. 텃밭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주변에 있던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땅을 평탄하게 만들어 좀 더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을 만들었다.

특히 텃밭을 가꿀 때 마른 나뭇잎을 활용하여 식물을 기르기 위한 흙을 만들기로 했다. 텃밭에 마른 나뭇잎을 채워 넣고 충분히 적도록 물도 주고 낙엽에 섞여 들어간 쓰레기들을 걸러내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낙엽을 줍거나 물을 주는 활동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흥미있어 했고 그 중에 몇몇은 지속적으로 물주기를 하거나 낙엽을 줍는 등의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낙엽으로 흙을 만드는 데는 최소 두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좀 더 흙을 빨리 만들기 위해 소똥을 덮어 두기도 했다. 약 한 달 정도 이 과정을 반복하였고 얼마 전 우리는 한 텃밭에 마른 소똥을 덮어 이전에 작은 화분에 심어 놓았던 시금치 모종을 옮겨 심었다.

하지만 현재 마른 나뭇잎이 쌓인 텃밭을 덮기 위한 소똥을 구하는데 난관이 예상되고, 텃밭 바로 가까이에 농구코트가 있어 농구공이 텃밭으로 들어와 모종이 심어져 있는 화분이나 텃밭을 망가뜨리는 것이 염려되기도 한다.





(3) Skipping Rope

우리는 Boys Home에서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할까 고민하던 끝에 줄넘기를하기로 결정했다. 줄넘기는 전신운동이 될 뿐만 아니라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반에 줄넘기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본 것도 줄넘기 수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매주 화, 목, 토, 오전은 Junior, 오후는 Senior를 대상으로 1시간 가량 줄넘기를 진행하고 있다. 매 주 다른 동작의 줄넘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토요일에 음악 줄넘기를 진행하고 있다.

줄넘기 수업을 시작했을 당시 아이들은 줄넘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첫 주에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줄넘기 실력을 테스트 했고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처음에는 줄넘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참 많았지만 이제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줄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줄넘기에 재미를 붙인 몇몇 아이들은 빨리 새로운 동작을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꾸준히 참여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준별 줄넘기 그룹은 흐지부지해졌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곳 저곳에서 줄넘기를 하기도 하고 줄넘기로 놀이를 하기도 했다. 우리는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더 큰소리를 내고 아이들이 줄넘기만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것이 줄넘기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함께 하는 우리들에게도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 같아 새로운 줄넘기 기술을 알려주는 것과 기초 줄넘기를 알려주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하되 아이들이 자유롭게 줄넘기를 하게 했다. 이와 더불어 가끔씩은 '림보'나 '꼬마야 꼬마야'같은 줄로 할 수 있는 놀이들을 하고 있다. 놀이를 통해 줄에 익숙해지다 보면 줄넘기도 곧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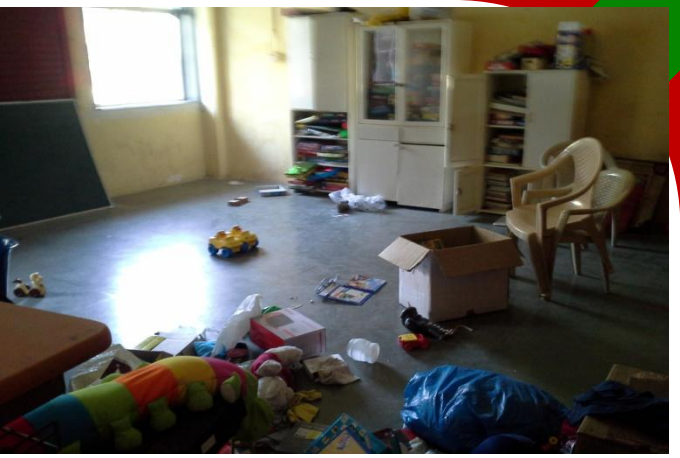


(4) The Library

Andheri YMCA 2층에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도서관이 있다. 우리는 처음 이곳에 오면서 Andheri YMCA 장인 Allen으로부터 2층에 있는 도서관을 1층으로 옮기고 새로 만들어질 도서관에는 책 도서관과 장난감 도서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제안을 받았다. 진행에 앞서 현재 뭉바이에 있는 두 곳의 어린이 도서관을 방문 하여 앞으로 만들어 갈 도서관에 대해 구상해 볼 수 있었다.

도서관 작업에 있어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재 도서관에 있는 책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전 기수가 도서관을 만들면서 책들에 라벨을 붙여 놓고 목록을 만들어 놓았기는 했지만 목록에서 누락된 책들도 많았고 라벨이 붙여지지 않은 기부된 책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장서 목록 작성과 동시에 도서관으로 이용될 1층 공간에 2층에 있던 책장들을 옮기고 좀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 페인트 칠과 청소를 했다. 1층 도서관이 정돈된 후 장서 목록이 완성될 때 짬 장난감 정리를 시작했다. 정리가 된 장난감들도 있었지만 안 된 것들이 더 많았기에 처음부터 꼼꼼히 구성물들을 체크하고 목록을 작성했다. 대부분의 장난감은 보드게임이었고 기부된 것들이었다. 부족품들이 조금씩 부족한 보드게임들은 다른 보드게임과 혼합하여 완성품으로 만들었다. 장난감도 도서들과 마찬가지로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보드게임, 퍼즐, 블록 및 인형 류, 학습용 게임) 라벨을 붙였다.

현재 도서들은 모두 정리하여 대출 가능하도록 했지만 몇몇 도서와 장난감을 넣어둘 가구가 부족하여 아직 제 자리에 배치 하지 못한 상태이다. 부족한 책장들은 YMCA 자체 회의를 거친 후 구입 될 예정이고 장난감의 이용과 대출에 대해서는 Allen과 상의를 한 후에 결정될 것 같다.



(5) Christmas Celebration

Andheri YMCA에서는 지난 12월 14일에 Christmas Celebration을 가졌다. 게임을 하는 부스를 만들어 우승자 쿠폰을 가진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기도 했는데, 우리는 한국 게임을 진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우리는 '땡땡먹기'와 '비석치기'를 고민하다 좁은 공간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비석치기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에서 지역 훈련을 받을 당시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했던 경험을 되살려 비석치기를 좀 더 수정 보완하여 머리와 무릎, 발을 이용하여 비석치기를 했다.

처음 해보는 Boys Home 아이들을 비롯하여, 행사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은 비석치기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에 즐거워 했고 진행하는 우리들도 흥이 났다. 처음에는 우승자 쿠폰을 험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에 연연하지 않고 서로 즐겁게 진행하고 즐기고 있었다.

한편 15일과 20일에는 Central Branch와 Borivali Centre에서 진행하는 Christmas Celebration을 방문하여 Christmas 분위기를 한껏 즐기기도 했다.



3. 우리들의 이야기

KARAN (류병수 단원)

사람 ; ① 생각과 말을 하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② 타인, 남. ③ 자기. 나. ④ 사랑 됨됨이나 성질.

언젠가 인도의, 뭄바이의 무엇이 좋게 그리고 나쁘게 여겨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나의 대답은 많은 사람들이었다. 좋은 것도 많은 사람들이요, 싫은 것도 많은 사람들이었다. 가벼운 대화 속에서 나온 문답이었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생각을 여전히 한다.

이곳은 지구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의 하나로 꼽히는 나라, 그 중에서도 경제수도라고 불리는 곳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뭄바이가 아니었다면, 엄청나다고 표현하기에도 모자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에서 내린 답이다. 물론 숨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인파는 외려 감당하기 힘들다. 또한 너도나도 구분하지 않고 만드는 (적어도 내 기준으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좀 더 나은 방향이 있지 아니할까 생각하게 되는) 현상들은 때때로 불편하다. 더구나 새로운, 그것도 여러 명을 대하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점도 한 몫 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모여야만 만들어 낼 수 있는 하나하나의 장관들을 멋지다. Boys Home의 친구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마주치고 마주하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혹은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리고 내가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때금씩 나는 특별하고 주목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샘솟는 나에게 그저 부족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느끼게 한다.

2013년의 마지막 달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 틈에 묻혀, 함께 살아가고자 다짐했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60여명의 아이들과 아침식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등교도 같이 하고, 몇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밤 늦게 잠드는 시간까지 많이 부딪히려고 했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30분에서 1시간씩 늦게 일어나는 아이들처럼 누장도 부

러보며 이곳 친구들의 생활과 비슷하게 하려고 해왔다.

Boys Home에서 함께 사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붙어 다니면서 그냥 열심히 뛰어 놀아 보려 했지만 그게 또 쉽지만은 않았다. 아이들이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흔들 때는 절고하자는 의미다.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할 때 역시 새끼손가락을 올린다. 새끼손가락만을 올린 채 손을 흔들는 것은 볼 일 끝났다는 뜻이다.) 동시에 많은 아이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을 때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감정적으로 커팅(cutting)이라 말하며 새끼손가락을 흔들다. 한동안은 나도 감정에 이끌려 커팅을 쉽게 외치기도 했는데, 어리석게도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을 가볍게 여기고, 상처를 줬다는 생각도 든다. 때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몰두해서 함께 하고자 했던 처음의 다짐에 소홀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다.

반면 한 달 사이에 어느새가 내 이름을 '병수 바이야(형)'라고 불러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도넛을 먹고 싶다는 말에 긴 시간을 기다려 도넛 체험을 한 뒤 도넛을 건네주는 친구도 있다. '울지마, 나는 너의 웃는 모습이 멋있더라'는 말에 '나 안 울었어'라고 씨익 웃어 보이는,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따다가 먹어보라는, 한참 뛰어 놀다가 발견한 풀잎을 먹는 것이라 저 한입, 나 한입 나눠먹는, 은근슬쩍 비밀이라던 자기 여자친구 이름을 속삭여주는, 햇빛에 물을 주고 있으면 자기도 하고 싶다면 도와주는, 아침 Tuition 시간 피곤해서 살짝 기대면 슬쩍 돌이보고는 그대로 있어주는, 등굣길에 한번 잠은 손을 놓지 않는 친구도 생겼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나름대로의 성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크리스마스 이브, Boys Home의 다섯 살과 여섯 살되는 막내들 5명. 학교에서 진행되는 Christmas Celebration에 Junior 몇 명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다.

한 달째 Sunday, Monday, ~와 1-one, 2-Two, ~로 매일 아침 지지고 뉘아대며 부대끼는 중이다. (이제는 저녁 자습시간까지 ABC~π~) 이날 아침 짧게 끝난 Tuition 시간에도 열심히 떠들고 장난치고 화났다가 웃었다가.....

Tuition이 끝날 때면 어김없이 'Have a good day, Bhaiya' 를 'Happy Birthday, Bhaiya' 로 하나같이 활기차게 발음한다. 매일매일을 나의 생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존재다.



12월의 마지막 주말, Mumbai Zoo 가는 길. 버스 안에서. 소풍은 언제나 흥분된다. 들뜬 마음으로 찍은 사진.

열심히 놀아 보려고 많이 뛰어 다녔다. 내가 다가가려 하면, 벌써 더 많이 다가와있는 아이들이다. 그 덕분에 전개도 결말은 즐겁다. 평범한 나에게 늘 웃음을 안겨주는 이들이 고맙다.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에 다시 또 기운을 내고 다시 또 논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속에 들어 앉아 있는 그 무엇을 미워하는 것이지. 우리들 자신 속에 있지 않은 것은 우리를 자극하지 않거든.’ 헤르만 헤세의 소설 테미안의 한 구절이 요즘 자꾸 떠오른다. 간혹 아이들이 미워지는 순간이면, (내가 싫어하기에 감추고 있는) 나의 모습인가 싶기도 하다. 거꾸로 좋아 보인다고 느낄 때면, 내게 없기에 그런가 싶다. 또 나이를 떠나서, 내가 부족한 그것을 채워 그런 좋은 사람이고 싶어진다.

누군가에게 Boys Home 안에서 계속 활동하기 보다는 밖으로 나가, 많은 인도를 보고 경험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곳을 방문하는 단순한 봉사자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이 덧붙여졌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미안한 편에서는 이 친구들에게 평범한 그 누군가로 보다는 특별한 누군가로 남고 싶었던 욕심도 들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아이들만큼 나를 돌아보게 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나아가 내가 기억하는 만큼 이들도 나를 기억해줄 것이라는 마음이 든다.

문득 Kamathipura Day Care Centre에서 흘렸던 땀방울이 뚜껑을 주워, 골목 입구까지 허겁지겁 달려와 웃으면서 건네주던 Helper 비비가 생각난다. Nilshi Camp Lakesite에서 감기로 고생할 때, 나를 걱정해주던 Uncle Ravi와 Boys Home의 Uncle Vijay, Aunt도 떠오른다.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생각되던 여기에서 한국의 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루하루 쌓아간다. 남은 시간에 대해 고려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이 느껴진다.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뒤심을 발휘해서 어디까지보다 더 열심히 뛰어 놀고, 배우고, 나와 그들을 돌아와야겠다.

— 무살, 스물 한살의 나를 되돌아보면 시간을 되게 물 흐르듯 보냈던 것 같다. 손을 짝 펴고 그 위에 모래를 얹으면 손톱새로 모래알들이 빠져나가듯이, 나의 시간도 그렇게 흘러내려 결국 내 손안에 잡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에 비해 최근 몇 개월은 적어도 내 눈으로 보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나 고민들을 날려보내지 않고 머릿속에 꼭꼭 눌러 담은 듯한 느낌이 들어 좋았다. 생각해 보면 이번 라온아띠 생활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아 부은 건 이기적이게도 나 스스로에 관한 것들이었다. 여기서 만나게 된 낯선 이들을 대하는 태도, 불편한 것들을 바라보는 자세, 팀원들의 관계 등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 나는 내가 불편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생각들, 결정들을 ‘모르겠다’ 라는 말로 스스로 정리해버리고 더 생각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가끔은 이 말이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스스로도 정리가 안돼 중구난방으로 흩어져있는 생각들과 내 의견에 대한 논리적 비약들을 감추기 위해 ‘잘 모르겠다’라고 잠정 결론내버리는 나의 방어적 성향인 것 같기도 하다.

2. 그동안 난 너무나 겁 많고, 회의적이고, 입만 산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해보지도 않은 것들을 겁부터 내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럴싸한 이유들을 붙이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켰다.

3. 이제껏 난 내가 호불호가 그다지 명확하지 않고, 꽤나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난 호불호가 명확한 사람이었다. 다만 그걸 표현하는데 있어 소극적이었을 뿐.

4. 나는 솔직하지 못하다.

5. 내 주위엔 나를 사랑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에 비해 난 그들의 소중한 마음을 그다지 무겁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 많이 없었다.

6. 남에게는 끊임없이 공감 받길 원하고, 위로 받길 원하면서 그에 비해 정작 나는 공감능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다. 너무 내 자신의 감정이 우선이었다.

7. 가끔 난 내 친구들과 동료들을 비교선상에 두고 나와 그들을 저울질하는 못난이었던 것 같다. 내가 내 주변사람들의 안녕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8.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남에게도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무척 강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이중성에 대해 고민하고 내가 위선적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 같다.

9.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라온아띠 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던 건 결국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고, 내가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던 건 다름아닌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10. 그래서 노력하고 싶다. 비겁하지 않아야 할 때 비겁하지 않고, 피해야 하지 않을 때 당당히 마주할 줄 알고, 무섭더라도 한 발짝 나아가야 할 때 나아 갈 수 있는 사람. 폭력적인 시선이 아니라 올바르게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작업하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 에겐 폭력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싶다.

함께 있던 이유로 행복했었던
우리들의 겨울날의 소중한 기억들
좋은 날엔 언제나 네가 있기에
잊을 수 없는 Memories

Ring the bells sing the song
this season is the time for love

익숙한 음악소리 가득한 거리
하얀 거품처럼 내려와서 소복히 쌓이는 눈
멀리서 들려오는 맑은 종소리
날 위해 준비해 둔 것 같아 너무 아름다워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
나를 항상 웃게 하는 너만 있으면 돼
내 맘을 다 아나 봐 하늘에서도
세상 가득히 눈이 와

Singing all around Singing all around

함께 있던 이유로 행복했었던
우리들의 겨울날의 소중한 기억들
좋은 날엔 언제나 네가 있기에
잊을 수 없는 Memories
잊을 수 없는 Memories

Ring the bells sing the song
cuz it's Christmastime
This season is the time For you



ROHAN (서용덕 단원)

이제 서야 인도에 사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었다. 혼자서 오토 리샤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로컬 트레인을 혼자 탈 수도 있고, 버스 노선도 중요한 갈 곳은 어디를 몇 번 타고 어디서 내려야 하는 지도 감이 잡혔다. 그런데 이제 남은 시간은 1달여 뿐이다.

지금 까지 사람들을 만나 왔고 관계를 맺어 왔다면 12월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 지속하기, 그리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현지인들 간의 관계 여보기를 한 것 같다. 인도에서 만난 친구들과 가까이 Facebook으로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농구 대회를 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다른 팀 코치로 있는 친구를 만나 오랜 시간 이야기도 나누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기도 했다. 다시 한 번 느끼는 것이지만 한국에서나 이곳에서나 사람 관계는 다 비슷한 것 같다. 가만히 만나면 반갑지만 어색하지는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요즘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청소를 도와주는 스텝들과도 꽤나 가까이 지냈다. 물론 우리 활동을 진행 하면서 그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 저것 부탁하면서 친해진 것들도 있다. 그러면서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바라 볼 수 있었다. 특히 20대 초반의 3명의 친구가 있다. 나이와 출신지 모두 다르지만 YMCA라는 곳에서 하나로 뭉쳐진 그들. 이 친구들 역시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다투기도 하고, 다음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구멍가게를 가기도 한다.



12월은 언제나 설레는 달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차를 기다리며 설레고, 길거리
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하나 둘씩 달리기 시작하면 12월 25일을 기다리며 설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 31일에는 다가오는 새 해를 기대하며 설레다. 하지
만 이번 12월을 조금 다르게 설레는 것 같다.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완성을 기
대하며 설레고, 아이들과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작은 설레임을
느꼈다. 이 설레임을 잘 기록하고 기억하다가 언젠가 일상에 지쳐 힘이 들때 그 설
레임의 추억들이 나에게 상쾌함으로 돌아오리라 생각이 든다.

또 12월은 다른 달들과는 달리 축제들을 상당히 많이 다녀왔다. 동네에서 크게 열
리는 축제도 갔다 왔고, 대학축제에도 온 좋게 갔다 올 수 있었다. 많은 축제들에서
인도인들의 춤과 음악에 대한 사랑을 새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춤을 잘 추고 못 추
는 것은 “No problem!” . 진정으로 그 축제의 분위기에 젖어, 흥겨운 음악의 리
듬에 빠져들어 입가에 함박웃음을 담고 신이 나 있는 그들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어
깨가 들쭉였고, DJ의 신나는 일렉트로닉 음악에서부터 최신 인도 영화 음악까지 모든
음악에 그들과 함께 나도 이 겨울 땀으로 웃음을 적셔가며 보내었던 것 같다.

12월은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 봤을 때는 이 곳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조금은 나
태함을 부렸던 달 같기도 하다. 조금만 피곤해도 이제 아이들이 이해해 주게지 하
면서 후다닥 방으로 들어간 적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침식사 시간이 너무나도
일어나기 힘들어 아침식사를 계속 거르고 있다. 시간도 많은데 잔뜩 쌓일 일을 처처
히 하자고 말 한 적도 있다. 막상 따지고 보면 몇 일 남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돌아
보니 익숙해짐이 때로는 게으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12월이다.



NEETA (조현정 단원)

12월에는 본격적으로 보이즈 홈에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STD2와 함께 한 Morning Tuition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STD2는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데 공부가 싫은 10명의 아이들이 아침 7시 반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아이들이 집중을 안하고 공부가 싫은 것이 이해가 가지만 다음 학년을 올라가기 위한 시험이 곧 있는 지금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걱정이 되기도 한다. 2학년 아이들의 Morning Tuition을 들어가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나는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선생님. 내가 준비한 것, 기대했던 것 만큼 아이들이 따라오지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아이들 탓으로 돌리지 않는 선생님. 끊임없이 노력하여 계속해서 발전하는 선생님. 아이들과 밀당 잘하는 선생님.

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아이들과 밀당 잘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연애를 할 때도 밀당이 중요 하듯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밀고 당기기가 중요한데 나는 밀당을 잘 하지 못한다. 항상 밀기만 하고 당길 줄은 몰라서 아이들이 때로는 나를 쉽게 보는 경향도 있다. 실제로 크리스마스 주부터 새해 첫 주까지 담당 선생님의 휴가여서 짧은 기간이지만 아이들과 나만의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내가 간단한 그림 카드를 만들어 가거나 학습지를 만들어가면 아이들이 좋아했고 어느 정도 과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교구를 만들면서 참 신이 났었는데 오랜만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어서 즐거웠던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갈 수록 아이들이 나에게 점점 익숙해 지면서 나를 조금은 가볍게 생각했는지 수업시간에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어 과제를 하지 않거나 나에게 장난만 치고 시간을 때우는 아이들이 속출했다. 결국 어느 날은 분노가 폭발하여(아이들과의 밀당에서 완전히 밀린 날이다. π π) 화장실에서 뺨래를 하며 아이들에게 서운했던 것, 화났던 것들을 줄줄줄 랩 하듯이 쏟아내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사실 요즘에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식었는지 모닝 튜션도 자체적으로 휴강하여 안 가기도 한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정신을 바짝 차려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나에게 아이들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는 그림자처럼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소재이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들여보려고 해도 잘 들어들지 않는다. 사실 이번 달 에세이를 쓰기 전 지금까지 썼던 에세이를 다시 한번 읽어 보았다. 대부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가있었다. 종종 내 세상은 온통 아이들 이야기로 뒤덮일 때가 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내 관심사는 아이들 밖에 없고 내 세상은 아이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좁은 세상이 된다. 인도에 와서 나의 좁은 세상을 조금 넓혀보려고 했지만 많이 넓어지지는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아이들과 나 사이에는 어떤 알 수 없는 끌림이 있는 것 같다. (사실 내가 일방적으로 달라 붙는 것이다.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끔씩은 아이들만 바라보다가 연애도 못하고 노처녀가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한다.)

내 세상에 온통 아이들 밖에 없어서 안타깝다고 해도 나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기를 소망한다.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나아가 아이들의 부모님, 세상과 소통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나에게 '소통'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고 그로인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나를 가장 흥분시키고 활기차게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게 될 내가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는 얼마나 되어있는 것일까. 사실 나는 인도에 오면서 '다른 사람을 마음에 들릴 수 있는 여유'를 찾기를 바랐다. 지금 나는 그 여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일까. 잘은 모르겠지만 인도에 오기 전보다는 조금은 여유를 찾은 것 같다. 확실한 것은 적어도 12월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한 걸 자유로워진 기분이고 편안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 기분, 이 느낌이 더 확장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저기 가운데 나란히 제일 신난 사람들, 라온아띠 10기 인도팀 맞습니다.
 PSY의 강남스타일도 나오고, 발리우드 영화 음악도 나오고
 그렇게 **간만에 좀 뛰어 놀았습니다.**

어디 주구장창 활동만 할 수 있나요. 놀 땐 더 열심히 놉니다.
DJ가 만들어내는 음악에 흔들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는데...

여느 **행사의 끝** 무렵이면, 절로 방방 뛰게 만드는 **DANCE TIME**이 이곳 뭄바이에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습에 당황했지만
 이제 좀 살아 본지라, 많이 들어 익숙해진 음악에 **이것이 인도다** 생각하고 몸을 맡깁니다.
 ‘Dhoom Machale’ , 마지막 화려한 파티처럼.

부러우면, 인도로 오시던가. 제대로 놀아봅시다.



1. 한 달 남짓 남았다. 소감은?

아쉬움이 크다. 좀 더 살 수 있다면, 살고 싶은 마음이다. 하루하루 정해진 귀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언제 돌아가냐고 물어볼 때마다 그 마음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처음부터 다섯 달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인도로 오기 전 주위에서는 많은 걱정을 했다. 반면 나는 무덤덤했다. 쉽게 돌아갈 수 없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사람인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살고자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간 시간도, 바로 이곳에서 사람과 생활한 순간을 때문에 아쉬wie 느껴지는 것 같다.

2-1. 지금까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많았다.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아이를 꼽는다면?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아직 Boys Home에서의 생활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앞서 활동한 아이들보다 이곳에 있는 친구들이 더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얘기도 아니다. 그냥 지금은 '무엇을 기억하고 싶다', '어떤 것을 가슴에 담고 싶다' 를 생각하기보다는 무작정 열심히 지내는 중이다. 물론 특별한 에피소드가 이야기 거리가 있는 친구들은 유독 생각이 나겠지만, '가장' 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많은 친구들과의 추억이 있다.

굳이 기억하려 하지 않더라도 떠오를 때가 있다. 솔직히 오늘 아침도 Morning Tuition에 참여하며 STD-5가.G.를 지켜보다가 문득 Balwadi에서 봤던 한 친구가 생각이 났다. 그냥 장난치고 있는 여섯 살짜리 친구에게서 그 장난기 어린 얼굴이 오버랩 되면서 벌써 기억났다.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생각나는 게 기억이지 않겠나 생각한다.

2-2.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영향이 있겠는가?

물론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모르겠다.

중간평가 전까지는 아이들과, 활동을 함께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이곳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단원들과의 관계를 들여다보고는 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잣대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런데 중간평가 때 간사님들께서 ‘그런 고민은 나중에 하라’ 이라고 조언해주셨다. 어쨌든 남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것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벌써 훗날의 내 모습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른 것 같다.

3-1. 팀 내에서 가장 잘 먹고, 거대한 위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인도에서 먹었던 음식 중 Best와 Worst 1위를 꼽자면?

‘위대하다’는 말은 정말 이질에 어느 순간부터 붙여진 이름이다. 잘 먹는 것은 맞지만, 많이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질문에 답하자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뽀하(Poha 또는 Bohal)’다. 나만의 애칭으로는 노란색에 쌀 같은 느낌이 있어서 Yellow Rice인데, 이곳 아이들은 쌀이 아니란다. (그런데 슈퍼에 가면 이 음식을 만드는 쌀을 따로 팔고 있다.) 하여튼 보통 아침에 많이 나온다. 간식으로 먹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길거리에서 다른 간식처럼 파는 곳을 보지 못했다. 더구나 우리는 뭍바이에 살면서도 여러 지역의 음식을 접할 수 있는데, 뽀하는 뭍바이가 속해있는 마하라슈트라주의 음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짜이’도 꼽을 수 있겠다.

인도 음식이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인도 음식 맛있다. 카레도 한국에서 맛보던 것보다 훨씬 맛나다. 그래서 딱히 좋아하지 않는 음식은 선택하기 힘들다. 다만 말레이시아에서 뭍바이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먹었던 기내식은 잊을 수 없다. 돌아갈 때는 태연하게 그 음식을 대할 수 있을지 나 스스로도 궁금하다.

3-2. Veg 음식을 유독 선호했다. 한국에서도 육식보단 채식인가? 그 이유는?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이곳 식당에 가면 같은 요리임에도 불구하고, Veg와 Non-Veg로 나뉜다. (가격도 다르고...) 대부분 Non-Veg를 골랐던 단원들보다 내가 골랐던 Veg가 가장 맛있었다고 평했었던 점이다. 그만큼 맛있다.

개인적으로도 원래 야채를 좋아하는 편이다. 그렇지만 음식을 가리는 편은 아니다. 풀 다 먹는다. (고기 사주면 엄청 잘 먹는다. 단 쌀도 엄청 잘 싸먹는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유제품도 Veg로 분류한다. Non-Veg로 분류되는 것은 오직 닭고기다. (물론 여기 돼지고기도 있고, 쇠고기도 있다.) 내가 완전한 채식주의자를 고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처음 몇 달간 닭을 기피한 이유는 살을 빼보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Boys Home에 와서는 아이들과 같이 밥 먹는데, 우리 단원만 닭고기를 먹는 게 미안해서다. 닭고기가 채식주의에 비해서는 비싸다 보니 매일 먹지 못한다. 그거야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서 선호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열심히 만들어주신 분께는 미안하기도 했다. 또 먹지 않았지만 관한 음식을 쓰레기를 만든 것 같기도 하고.

4-1. 팀 내에서 가장 일찍 기상하고 일찍 자는 편이다. 그 원동력은?

원동력이라하면 그냥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반응하니까 그렇게 된다. 일찍 잠든 만큼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늦게 잠자리에 들더라도 늦게까지 잠자는 편은 아니다.

남들 만하는 Veg 선호하고 일찍 잠들어 일찍 일어나는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것 같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팀원들 중에서 그나마 (평소) 건강하게 지냈던 사람이 나왔던 듯하다. 그 이유의 하나가 가벼운 식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던 생활이지 않을까 싶다.

4-2. 일찍 일어나서 무얼 하나?

나는 아침잠 대신 아침밥을 선택했다. 원래도 아침밥은 어떻게든 먹으려고 노력하는 1인이다. Boys Home의 아이들은 6시면 일어나서 6시 30분에 아침밥을 먹는다. 라운아피를 위해 따로 차려진 밥상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만큼 함께 밥 먹고 싶었다. 그래서 6시 30분이면 밥 먹으러 올라간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Morning Tuition까지는 시간이 있기에, 고학년들의 등급을 함께하고, 다시 돌아온다. 1~2주 정도는 6시에 주방으로 올라가서 인도 요리하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육체적 활동이 많아지면서 요즘은 못하고 있다. 활동과는 별도로 인도에 와서 인도 요리 하나쯤 익혀가고 싶었는데 그냥 방해되지 않게 지켜만 볼지라 수확은 별로 없다. (사실은 썬하의 요리법을 알고 싶었지만 새벽에는 벌써 점심 요리를 준비하신다.)

5. 팀원들 사이에서는 타칭 ‘여왕개미’로 군림하며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한다. 팀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솔직히 여왕개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 질문 또한 군림이라는 단어가 갑변을 회피하게 만든다. 우스갯소리로 (농담 삼을 주제는 아니지만) 카스트 얘기가 나오면, 나는 불가촉천민이라는 얘기를 한다. 군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그럼에도 그렇게 느껴졌다면, 내가 그러려고 했든, 많았든 그런 나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행동을 해왔다는 얘기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라운아피를 시작하면서 짜져서(?) 이끌려 가보고 싶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 내 의견이 반영된 부분도 있겠지만,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주장도 확실하고, 좀 더 좋은 생각을 많이 해내는 단원들이다. 그래서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눈치(?)도 보는 편인데..... 내가 노력해야하나보다. 특히 중간평가 이후로는 좀 더 소극적이 되려고 했는데, 때로는 그런 과정으로 팀원을 불편하게 한 것 같기도 해서 미안하다. 관계적인 부분은 좀 더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기도 한데, 내가 좀 더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다. 네 달 동안 함께 살고 있는 단원들을 고맙고 미안하다.

6. 평소 위생관리가 철저하다. 팀원들의 위생 상태는 어떻다고 진단하는가?

철저하지 않다. 어떨 때는 잠이 너무 올 때는 그냥 잠들기도 한다. 철저했다면, 아마 어떻게 해서든 그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어쨌든 사람의 생활패턴이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서 느껴지는 바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위생에 말을 하는 것은 진심을 때도 있지만, 농담일 때도 있다.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거실의 탁자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다.

7. 그 밖에 하고 싶은 말

크리스마스 선물도 아니고... 질문을 조금 일찍 줬으면 좋았을 걸, 잠 들어야 하는 시간을 훨씬 지나서까지 답변을 달고 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이게 내 마음인가 싶기도 하다. 기대하지 못한 답변이었다면, 멀쩡한 정신 상태에서 답변해주도록 하겠다.

#5. 동네 한 바퀴, 거리에서

Boys Home에 거주하면서 등·하교하는 아이들의 동태(?)를 살펴 보면 인도를 조금 더 알게 되기도 한다. 이른바 ‘교육열’ 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빼놓을 수 없지만, 이곳 부모님들의 교육열도 나름 높다. 실제로 유치원서부터 서로 좋은 곳에 보내려는 입학 경쟁이 벌어지는 곳도 있단다. Boys Home에서도 별의 하나로 자습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정도다. 이는 등교길을 함께 하는 동안 등·하교를 함께 하는 부모님의 모습에서부터 느낄 수 있다. 지난 9월과 10월에 활동했던 Play-school(Balwadi)이야 어찌 혼자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이 있겠냐만은 교복을 입은 자식과 함께 등·하교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안전상의 이유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학생 학생증을 필수적으로 챙기는데, Boys Home에 있는 대부분 아이들이 다니는 한 학교에서는 학생증에 칩이 내장되어 출석여부를 기계로 갖다 대어 확인한다. 지각, 결석 등이 발생할 때는 부모님께 연락이 가기도 한단다. 흡사 일부 대학교의 출결시스템을 보는 듯하여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에 비해 쉬는 날도 많다. 11월 Diwali 기간에도 2주 가량의 방학을, 12월 Christmas와 새해를 끼고 1주 이상의 방학을, 때론 Half-Day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일찍 마치고 오는 날이 생각보다 잦다. 또한 오전 8시를 전후로 등교하면 1시에, 12시 30분을 전후로 등교하면 6시에 돌아오는 정도로 생각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은 적다. 그렇지만 현재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하는 분량을 살펴보면 꽤 많다. 게다가 학교 가방에 들어있는 책과 공책은 상당한 무게다.



저학년(상)과 고학년(하) 등교길



한편 12월 6일, 공식적인 휴일은 아니었지만 Boys Home의 아이들은 등교하지 않거나 Half-Day라며 일찍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날 중의 하나다. 이날은 바바사헤브 암베드카르(Babasaheb Ambedkar, 빔라오 람지 암베드카르^{Bhimrao Ramji Ambedkar})가 사망한 날로 그를 추모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인도의 역사적 인물로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를 가장 많이 떠올린다. 실제로 공휴일이었던 10월 2일 방문했던 간디 탄생을 맞아 방문한 간디 기념관, 마니 바반에서는 한국어로 된 안내 유인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간디는 우리에게도 친숙하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간디의 반대편에 암베드카르를 세울 정도로 그의 동상도 꽤 많다. 간디가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의 ‘마하트마’로 불린다면, 암베드카르는 ‘어른’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바사헤브’로 불려진다. 암베드카르는 소위 불가촉민이라 불리는, 달리트의 자식으로 태어나 몸소 차별을 겪고 자랐다. 그리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달리트 문제를 알리고, 달리트를 위해 일했다.

간디와 암베드카르의 견해차이는 정치적으로도 대립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이어진다. 정치 유세가 굳이 두 인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인도의 큰 길을 다니다 보면, 여러 사람의 얼굴이 함

#5. 동네 한 바퀴, 거리에서

계 들어간 광고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이 정치인이다. 지역 정치인뿐만 아니라 각 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영향력 있는 인물을 함께 표시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라도 열릴라치면 정치인들의 사진이 들어간 구조물이 설치되기도 한다. 때로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 각종 공약이나 계몽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도 한다. 어느 한 켠에는 반드시 정치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도인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사진을 거리 어디에서만 볼 수 있는 것만큼 높지 않다.



▶ C.S.T 역 앞에서도 암베드카르의 동상을 볼 수 있다. 전통 의상인 도티를 입은 간디의 동상과 다르게 그의 동상은 서구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Mumbai Zoo 내에 설치된 인도 영웅 시바지 어머니 상. 뭄바이에서는 역사적 인물의 동상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불가촉제의 폐지를 주장했던 간디는 불가촉민을 하리잔(Harijan)이라고 불렀다. 이는 '신의 자식'이란 뜻이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각성된 불가촉민과 많은 일반인이 불가촉민을 달리트(Dalit)라고 부른다. 이는 '몰락한 사람(broken man)'의 의미를 갖고 있고, 해방적 의도를 담고 있다. …(중략)… 달리트의 입장에서 본다면, 힌두교의 강화는 독립된 인도에서도 자신들이 여전히 최하층 계급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간디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인도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결코 거론하지 않았던 점이다. …(중략)… 달리트를 힌두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간디였고, 달리트를 힌두의 틀에서 끌어내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암베드카르였다.

카스트에 대한 견해차이는 사회경제적 미래상과 관련해 간디와 암베드카르 사이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견해차이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간디는 반공업주의자였고, 사람들이 최소한의 욕구만을 갖고 대대로 내려온 직업에 기꺼이 종사하며 살아가는 촌락을 인도의 이상사회로 보았다. 그러나 암베드카르에게 '촌락'은 카스트 제도의 억압과 사회경제적 후진성이 존재하는 '시궁창'이었다.

- 암베드카르 평전 (게일 옴베트, 이상수, 필맥, 2005)



간디 초상화가 그려진 인도 화폐



12월 6일 전후 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홍보물



정당 및 정치인 홍보물



#5. 동네 한 바퀴, 거리에서



깨끗한 식수를 이용하자(좌)와 화장실을 이용하자(우)는 내용의 버스 광고. 각각 힌디어와 영어로 된 광고가 존재한다.



좁은 골목에서는 정치인의 얼굴이 들어간 홍보물보다 쓰레기가 더 많다. 이는 우리가 인도에 들어온 순간부터 느꼈던 문제다. 큰 길가나 주요 시설에는 청소노동자가 있지만, 주택가에는 그렇지 않다. 쓰레기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아 자칫 방심하다가 오물이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길을 걷다 밟을 수 있다. 출입구를 기준으로 밖은 더럽지만, 안은 복도부터 깨끗하다는 것이 함정이라면 함정이다. 물론 사람들은 그것이 더럽다는 것을 안다. 인도(人道)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도로를 따라 걷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쓰레기로 인한 악취 때문이란다. 주택가 곳곳에는 쓰레기통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지 혹은 제대로 버리지 않아서인지 쓰레기통 주변에도 쓰레기와 오수(汚水)가 많다. Mumbai Central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는 쓰레기 더미 부근에서 먹거리를 팔고 살고, 화장실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몇몇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 때는 안타까웠다. 특히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창 밖으로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날리는 것은 기본이다. 기차를 이용할



Bandra 지역 해변가 쓰레기



승강장 철로에 버려진 쓰레기(상)와 승강장에 비치된 쓰레기통(하)



숙소 주변 한 골목에는 주인을 잃은 고물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쓰레기통 주위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투기되고 있다.



#5. 동네 한 바퀴, 거리에서



Mumbai Zoo 내부 쓰레기통. 간디의 어록을 앞에 붙여두고 있다.

때에도 역시 선로에, 혹은 선로 옆에 투기된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승강장에는 쓰레기통이 버젓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선로에 쓰레기를 버린다. 게다가 Boys Home Secretary Allen이 농담 삼아 던진 말처럼, Mumbai에서는 이른바 몰(Mall)에서 쇼핑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그런 대형건물 근처를 조금만 나가면 쓰레기 더미를 확인할 수 있다. 승강장에는 쓰레기통이 버젓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선로에 쓰레기를 버린다. 게다가 Boys Home Secretary Allen이 농담 삼아 던진 말처럼, Mumbai에서는 이른바 몰(Mall)에서

쇼핑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그런 대형 쇼핑몰 근처를 조금만 벗어나면 쓰레기 더미를 확인할 수 있다. 값싼 부지이기 때문에 선택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 것 같아 씁쓸함이 남는다. 분명 서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한 순간의 편안함 때문에 쓰레기는 오늘도 쌓인다.

텃밭을 가꾸기 위해 주변 골목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거리에서 무언가를 줍는 것이 신기한지 물어오는 사람이 종종 있다. 반대로 한국에서 누군가에게, 외국인에게 그런 관심을 갖고 다가간 적이 있는지 돌아본다. 나아가 거리를 걸으면서, 이곳 저곳 이동하면서 주변을 이렇게나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지도 말이다. 요즘 이 동네를 걸으면서, 가까운 곳에 건설되고 있는 기차역이 눈에 띈다. 1년 전부터인가 시험 운행이 이뤄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지나칠 때마다 역명이 부탁되는 등 진전되고 있음이 유독 눈에 띈다. 과연 새롭게 개통되는 지하철(Metro)을 승차해보고 이 동네를 떠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하루하루 개통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D.N.Nager Metro역, 저 멀리 시범운영 중인 열차가 보인다. 역 근처에는 기타 건물이 한창 건설 중이다.



Andheri Branch 주변 골목길



MONTHLY PHOTO





















